

##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신 행 우\*\*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지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인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 확장 개정판(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2)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 보았다. EOM-EIS2는 연속 척도를 사용하는 직접형의 정체성 지위 분류도구로서 기존의 면담법과는 달리 집단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척도이다. 연구 결과 정체성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변별 및 동시 타당도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었는데, EOM-EIS2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태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서봉연(1975)의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척도들과는 예상했던 방향의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체성 지위를 분류한 후 지위 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척도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정체성 지위 분류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OM-EIS2가 정체성 연구에서 타당하고도 유용한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지위를 분류할 때 적용하는 규칙의 문제점과 EOM-EIS2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rikson(1968)이 청년기의 성격발달을 자아정체성 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한 이래, 자아정체성 개념은 청년기 발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 영역들 중 하나이다.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성격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청년 후기 동안에 일어나는 정체성의 통합은

아동기가 끝나고 성인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가 된다(Marcia, 1993).

정체성 형성에 대한 Erikson의 관점을 정교화 시킨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 모형이다. 정체성 지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수준의 개인차를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hwshin77@hanmail.net

함께 진단하고자 하는 개념인데, 청년기 자아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Marcia의 정체성 지위에 관한 연구의 틀 위에서 이루어졌다(송명자, 1995).

Erikson의 정체성 개념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적 장치인 정체성 지위들은 Erikson의 연구에서 '탐색(exploration) 혹은 위기(crisis)'와 '관여(commitment)'라는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Marcia, 1980). 여기서 위기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역할들과 멋진 삶에 대한 이상들을 실험하는 탐색의 시기를 의미하며, 관여란 자기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제공해주는 데 기여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투여의 정도를 말한다(Bourne, 1978).

그리고 위기의 경험 여부와 관여의 여부에 의해 네 가지 정체성 지위가 도출된다. 먼저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적극적인 탐색의 시기를 거친 후 특정한 정체성 요소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Meeus, 1996). 정체성 성취 지위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대개 강하고, 자기-지향적이고 또 매우 적응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Marcia, 1980).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는 정체성 위기의 한복판에서 현재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 중에 있으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애매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Marcia, 1993; Meeus, 1996). 정체성 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감하고, 매우 윤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Marcia, 1980).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는 정체성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정체성 폐쇄 지위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 준 목표나 신념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Marcia, 1980; Meeus, 1996). 이들은 목표나 신념이 확고부동하고 협동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경직되고 독단적이며 엄격한 준칙주의자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Marcia, 198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정체성 위기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발달적 과업에 대해 아직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Meeus, 1996). 정체성 혼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무사태평하고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감동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Marcia, 1980). 이렇게 정체성 지위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정체성 지위가 가지는 건 강한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 모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체성 지위 개념은 정체성 문제를 다룰 때 Erikson의 이분법적 분류(정체성 대 정체성 혼미)보다도 더 다양한 양식을 제공해주며 관찰자간 신뢰도가 높아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이점이 있다(Marcia, 1980).

지금까지 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방법들은 크게 면접법과 질문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면접법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실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평정자가 내려야 하는 복잡한 추론 때문에 평정자간 신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질문지법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편파에 오염되기 쉬운 점과 부적절한 구성 타당도 때문에 비판받아왔다(Grotevant & Adams, 1984).

정체성 지위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형(direct)과 도출형(derived)으로 나누는 것이다. 직접형 측정도구는 정체성 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도출형 측정도구는 탐색과 관여의 측정치로부터 정체성 지위를 도출해낸다. 더불어 정체성 지위를 척도화하는 데에도 범주 척도(categorical scaling)와 연속 척도(continuous scaling)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Schwarz & Dunham, 2000). 정체성 지위

평가도구들 중 면접법은 주로 범주 척도를 사용하는 직접형의 도구이며, 국내에서 정체성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온 김형태(1989)의 지위분류형 자아정체감 척도는 범주 척도를 사용하는 도출형 도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범주 척도를 사용한 척도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범주적 측정치들은 연속적인 측정치들에 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는데 덜 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Schwarz & Dunham, 2000).

Adams, Shea 및 Fitch(1979)는 Marcia의 정체성 지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객관적 도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M-EIS)'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연속 척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직접형 측정도구이다. OM-EIS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정체성 지위들의 특징들을 반영하는 24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Likert 식 6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OM-EIS는 이후 64문항으로 이루어진 확장 개정판(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Grotevant & Adams, 1984)이 나왔고, 그 후 Bennion & Adams(1986)가 최종 개정판(EOM-EIS2)을 내놓았다. EOM-EIS는 면접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가 용이하고 둘째, 채점시간 신뢰도의 문제가 없으며, 셋째, 개인별로 각각의 정체성 지위에 대한 연속적 점수(continuous scores)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Marcia, 1993).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김형태(1989)의 지위분류형 자아정체감 척도 외에는 이렇다 할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네 가지 정체성 지위 점수를 제공해주며 통계적 분석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EOM-EI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정체성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3개 대학과 지방 소재 1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78명(남 180명, 여 19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378명 중 1학년이 128명(33.9%), 2학년이 58명(15.3%), 3학년이 105명(27.8%) 그리고 4학년은 87명(23.0%)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4세(표준편차: 2.41)였다. 그리고 전체 378명 중 105명(남 42명, 여 63명)은 3주 간격의 재검사에 참가하였다.

### 측정도구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M-EIS). 본 연구에서는 Bennion과 Adams(1986)가 최종 개정판 확장판(EOM-EIS2)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EOM-EIS2는 Likert 식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EOM-EIS2는 관념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과 대인 정체성(interpersonal identity)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 전체 정체성(total ident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념 정체성에는 직업(occupation), 종교(religion), 정치(politics) 및 철학적 생활양식(philosophical life-style) 등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인 정체성에는 우정(friendship), 이성교제(dating), 성 역할(sex roles) 및 여가활동(recreation) 등의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EOM-EIS2는 전체 8개 영역 각각과 관련된 8개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8개 영역 각각에는 네 가지 정체성 지위(성취, 유예, 폐쇄, 혼미) 각각에 해당하는 2개씩의 문항들이 있다(부록 1 참조).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Marlowe와 Crowne(1964)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이주일(1988)이 13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자아정체감척도(Ego Identity Scale). EOM-EIS2의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봉연(1975)이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번역하여 문항 분석과 문항의 수정·추가를 거쳐 만든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총 64 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정성, 목표 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및 대인관계 등 8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 결 과

먼저 관념 정체성, 대인 정체성 그리고 전체 정체성의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정체성 척도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및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

	평균	표준 편차	범위	Cronbach $\alpha$
<b>관념 정체성</b>				
성취	29.9	6.1	11-46	.71
유예	27.0	4.7	13-41	.55
폐쇄	18.5	5.9	8-37	.80
혼미	26.5	6.3	9-45	.67
<b>대인 정체성</b>				
성취	27.7	5.5	13-48	.70
유예	26.2	4.8	12-42	.57
폐쇄	18.3	5.1	8-35	.77
혼미	21.7	5.6	8-41	.69
<b>전체 정체성</b>				
성취	57.3	10.3	23-84	.79
유예	53.0	8.5	25-73	.70
폐쇄	36.7	10.4	12-69	.87
혼미	47.5	10.6	16-82	.76

## 신뢰도

관념 정체성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55~.80의 범위였고, 대인 정체성의 경우에는 .57~.77의 범위였다. 그리고 전체 정체성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0~.87의 범위였다(표 1 참조).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상관은 관념 정체성 척도들이 .74~.84의 범위였고, 대인 정체성 척도들은 .70~.75의 범위였다. 그리고 전체 정체성 척도들은 .76~.83의 범위였다.

## 요인 타당도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관념 정체성, 대인 정체성 및 전체 정체성 척도들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관념 정체성 척도와 대인 정체성 척도들 다 전체 정체성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77 \sim .92, p < .001$ ). 그리고 관념 정체성 척도와 대인 정체성 척도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취  $r = .48$ ; 유예  $r = .48$ ; 폐쇄  $r = .73$ ; 혼미  $r = .38, all p < .001$ ). 이와 같은 상관 양상은 관념 정체성과 대인 정체성이 비록 상당한 비공유 변산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다.

그래서 관념 정체성 영역과 대인 정체성 영역을 별개로 채점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전체 문항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64 문항에 대해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회전 요인분석에서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이 17개가 추출되었으나, Scree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8개로 지정한 후 Varimax 요인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부록 2 참조) 추출된 요인들 중 4개 요인은 각각 네 가지 정체성 지위를 대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개 요인은 정체성 영역별로 묶인 요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8개 요인들은 전체 변산의 40.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모두 정체성 폐쇄 지위의 문항들이었다. 이것은 폐쇄 지위에 해당하는 전체 16문항 중

종교 영역의 1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의 폐쇄 지위 문항들이 다 포함된 것이며, 15개 문항 모두가 .44 이상의 높은 요인 적재값을 보였다.

요인 2는 관념 정체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영역의 5개 문항과 생활방식 영역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흥미와 유예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정적인 요인 적재값들(+ loadings)을 보인 반면 성취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부적인 요인 적재값들(- loadings)을 나타냈다. 이렇게 흥미와 유예 문항들이 같은 방향으로 묶인 것은 직업과 생활방식 영역에 대한 관여의 존재여부가 이들 문항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하게 만들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요인 2는 직업과 생활방식 영역에서의 관여의 부족을 반영하고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 3에는 대인 정체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 역할 영역의 6문항과 이성교제 영역의 3문항이 같이 묶여 이들 두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인 적재값의 부호를 살펴보면, 성취와 유예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정적인 적재값을 보인데 반해 흥미 지위의 문항들은 부적인 적재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요인 3이 성 역할과 이성교제 영역에서의 탐색의 여부를 반영해주는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요인 4에 묶인 7개의 문항은 모두 종교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와 유예 지위의 문항들은 정적인 적재값을 그리고 성취와 폐쇄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부적인 적재값을 보여, 요인 4가 종교에 대한 관여의 부족을 반영해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 5는 관념 정체성 영역들 중 생활방식 그리고 대인 정체성 중 여가 영역과 우정 영역의 성취 지위에 해당하는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6은 관념 정체성 중 정치 영역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이 묶였는데, 흥미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부적인 적재값을 그리고 성취와 유예 문항들은 정적인 적재값을 나타내 이 요인이 정치 영역에 대한 탐색의 여부를 반영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7에는 9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여가 영역의 흥미 지위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예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문항들의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관념 정체성 영역들 중 생활방식, 직업, 정치 등의 영역들이 망라되었으며, 대인 정체성에서는 여가, 이성교제, 우정 영역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8은 우정과 이성교제 영역의 5개 문항들이 같이 묶였는데,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흥미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이와 같은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8개 요인 중 4개 요인(요인 1, 5, 7, 8)은 각각이 순수하게 단일 정체성 지위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요인들도 2개 요인(요인 2와 4)은 관여의 존재 여부 그리고 2개 요인(요인 3과 6)은 탐색의 존재여부에 따라 일관성 있게 묶여 EOM-EIS2 문항들이 이론적인 네 가지 정체성 지위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측정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념 정체성 영역의 문항과 대인 정체성 영역의 문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요인들은 전체 8개 요인 중 단지 3개(요인 1, 5, 7) 밖에 없었다.

### 변별 타당도

기존의 질문지법 검사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EOM-EIS2가 타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벗어나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EOM-EIS2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보기 위해 정체성 지위 점수들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인 정체성 영역에서는 전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와 관념 정체성의 흥미 점수( $r = -.19, p < .001$ ) 및 성취 점수( $r = .15, p < .01$ ) 그리고 전체 정체성의 흥미 점수 및 성취 점수사이에서만 유의한 상관(각각  $r = -.15$ 와  $.15, p < .01$ )을 보였다. 하지만 실

제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정체성 점수 변산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기껏해야 3%를 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이었다.

**동시 타당도**

EOM-EIS2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온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척도들과 EOM-EIS2의 정체성 지위 점수들간의 상관을 구하였다(표 2). 그 결과 전체 정체성 성취 지위 점수는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 중 안정성과 독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범위  $r = .23 \sim .51$ )을 나타내 성취 지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혼미 지위 점수는 안정성과 독특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범위  $r = -.18 \sim -.52$ )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혼미 지위 점수는 성취 지위 점수와는 대조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은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폐쇄 지위 점수는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 중 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독특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폐쇄 지위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나 독특성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예 지위 점수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등 여러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유예 지위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현재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아직 확고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결국 EOM-EIS2의 지위 점수들과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간의 유의한 상관들은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과는 EOM-EIS2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체성 지위 분류**

Adams, Bennion & Huh(1989)가 제시한 일련의 규칙에 따라 관념 정체성 영역과 대인 정체성 영역을 합친 전체 정체성 영역의 지위 점수들을 사용하여 정체성 지위를 분류하였다. 이들은 정체성 지위 분류를 위한 규칙에서 각각의 '지위 점수 평균 + 1 표준편차(SD)'를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응답자가 네 가지 지위 점수들 중 하나에서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정체성 지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폐쇄 지위 점수만이 절단점 이상인 경우 그 사람을 폐쇄 지위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 지위들을 성숙의 정도에 따라 혼미-폐쇄-유예-성취로 순서를 매기고, 만일 응답자가 한 개의 지위 점수에서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지위들 중 가장 덜 성숙한 정체성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예를 들면, 혼미, 폐쇄, 유예 지위 점수가 모두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 그 사람은 혼미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응답자가

표 2. EOM-EIS 지위 점수들과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척도들간의 상관관계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전체-혼미	.09	-.52 ***	.12 *	-.33 ***	-.28 ***	-.22 ***	-.18 ***	-.18 ***
전체-폐쇄	.16 **	-.09	-.31 ***	.07	.09	-.04	.08	.10 *
전체-유예	-.25 ***	-.25 ***	.15 **	-.08	-.15 **	-.03	-.24 ***	.07
전체-성취	.04	.51 ***	-.06	.43 ***	.36 ***	.42 ***	.23 ***	.24 ***

\*  $p < .05$ , \*\*  $p < .01$ , \*\*\*  $p < .001$

네 가지 지위 점수 모두에서 절단점 미만의 점수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Undifferentiated/Low Profile Moratorium)' 지위로 분류된다. Adams 등(1989)은 순수한 유예(pure moratorium) 지위와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를 대개는 동등하게 유예 지위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를 별개의 지위로 따로 취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전체 정체성 지위 점수들을 이용하여 정체성 지위를 분류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각의 정체성 지위 집단의 정체성 지위 점수들의 평균을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표 4) 혼미, 폐쇄, 유예 및 성취 지위 집단은 각 집단에 해당하는 지위 점수에서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분화유예 지위 집단은 혼미, 폐쇄 및 성

취 점수에서는 유예 지위 집단과 다르지 않았으나, 정작 유예 점수에서는 유예 지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고 오히려 폐쇄나 성취 지위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분화유예 지위 집단이 순수한 유예 지위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며, 이 두 지위 집단을 따로 취급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정체성 지위 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척도의 차이 검증**

정체성 지위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각각의 지위 집단들이 정체성의 여러 측면들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 척도들에 대한 정체성 지위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5) 혼미 지위 집단은 독특성과 자기존재의식을 제

표 3. 성별 및 정체성 지위 집단별 분포

	혼미 집단	폐쇄 집단	유예 집단	미분화유예	성취 집단	전 체
남학생	26(14.4%)	26(14.4%)	23(12.8%)	78(43.3%)	27(15.0%)	180(47.6%)
여학생	35(17.7%)	25(12.6%)	26(13.1%)	100(50.5%)	12( 6.1%)	198(52.4%)
전 체	61(16.1%)	51(13.5%)	49(13.0%)	178(47.1%)	39(10.3%)	378(100%)

$\chi^2 = 9.2, p > .05$

표 4. 정체성 지위 집단별 지위 점수 평균의 차이 검증

지위 지위점수	① 혼미 (n=61)	② 폐쇄 (n=51)	③ 유예 (n=49)	④ 미분화유예 (n=178)	⑤ 성취 (n=39)	F	사후검증(Scheffe)
전체-혼미	63.2 (5.1)	45.0 (8.5)	45.3 (8.8)	45.7 (8.0)	36.6 (5.6)	91.0 ***	①>②③④>⑤
전체-폐쇄	38.6 (11.6)	52.3 (5.5)	31.3 (7.6)	33.5 (7.3)	34.3 (8.5)	60.8 ***	②>①③④⑤ ①>③④
전체-유예	53.6 (9.2)	53.5 (8.7)	64.3 (3.2)	50.5 (6.8)	49.0 (6.3)	39.7 ***	③>①②④⑤ ①>⑤
전체-성취	50.9 (10.2)	59.7 (9.1)	58.5 (9.5)	55.2 (8.2)	72.8 (3.9)	44.5 ***	⑤>①②③④ ②>①④, ③④>①

\*\*\*  $p < .001$

표 5. 정체성 지위 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척도의 차이 검증

자아정체성	지위 ① 혼미 (n=61)	② 폐쇄 (n=51)	③ 유예 (n=49)	④ 미분화유예 (n=178)	⑤ 성취 (n=39)	F	사후검증(Scheffe)
안정성	19.9 (3.3)	19.8 (3.0)	17.3 (3.6)	19.6 (3.3)	19.6 (3.5)	5.6 **	③<①②④⑤
목표지향성	18.1 (3.7)	21.8 (3.6)	21.4 (3.9)	22.4 (3.8)	25.2 (3.0)	24.8 ***	①<②③④<⑤
독특성	22.0 (2.5)	19.4 (2.2)	22.6 (3.0)	20.9 (3.0)	20.8 (3.1)	10.2 ***	②<④<③ ②<①
대인역할기대	20.3 (2.1)	22.1 (2.7)	21.0 (2.6)	21.6 (2.9)	23.5 (2.4)	10.2 ***	①③④<⑤ ①<②, ①<④
자기수용	17.8 (3.3)	19.8 (3.3)	17.9 (3.3)	19.5 (3.5)	21.3 (3.2)	8.8 ***	①③<⑤, ①<②④
자기주장	18.8 (3.5)	19.8 (2.4)	19.7 (3.0)	19.9 (3.3)	22.4 (3.4)	7.9 ***	①②③④<⑤
자기존재의식	19.3 (3.3)	21.0 (4.2)	18.4 (4.2)	20.9 (3.7)	21.7 (4.1)	6.9 ***	③<②④⑤
대인관계	20.4 (2.7)	22.5 (2.5)	21.2 (3.0)	21.5 (3.0)	22.2 (2.9)	4.3 **	①<②

\*\*  $p < .01$ , \*\*\*  $p < .001$

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정체성 지위 집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면 성취 지위 집단은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폐쇄 지위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독특성이 가장 낮았으며,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등에서는 성취 지위 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유예 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안정성과 자기존재의식이 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등에서는 혼미 지위 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관여의 부족이라는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미분화유예 지위 집단은 유예 지위 집단과 일부 유사한 점들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혼합된 양상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정체성 지위 집단들은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에서 어느 정도 서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정체성 지위 분류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분화유예 집단이 여러 다른 지위 집단들과 공유된 양상을 보인 것은 미분화유예 집단이 유예 지위 집단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또한 이 집단에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수 혼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연속 척도를 사용하는 직접형의 자아정체성 지위 측정도구인 EOM-EIS2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EOM-EIS2의 문항들이 신뢰롭고 타당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성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구성, 변별 및 동시 타당도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었다. 다만 정체성 하위 척도들 중 관념-유예 척도와 대인-유예 척도에서 .55와 .57



의 낮은 내적 합치도 계수를 보였는데, 이는 유예 지위 척도 문항의 부적절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유예 지위의 본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예 지위가 관여의 부족이라는 면에서는 혼미 지위와 그 속성을 같이하고 또 위기의 경험 측면에서는 성취 지위와 그 속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유예 지위 문항들이 다소 혼합된 양상을 보여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은 요인분석에서 몇몇 정체성 영역(직업, 생활방식 및 종교)에서는 유예 지위 문항들이 혼미 지위 문항들과 같은 방향으로 묶인 반면, 정치와 성 역할 등의 영역에서는 유예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성취 지위 문항들과 같은 방향으로 묶인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정체성 척도 전체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각각의 정체성 지위를 대표하는 4개 요인과 정체성 영역별로 묶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이론적으로 해석 가능한 요인구조를 보여주었다. 전체 문항들 중 7개 문항은 절대값 .30미만의 요인 적재값을 보였고(가장 낮은 적재값이 .23이었음) 또 일부 문항들은 2개의 요인에 중첩되어 부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이들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EOM-EIS2가 정체성 지위와 정체성 영역별로 문항들을 망라하도록 구성(각 지위별로 영역 당 2문항씩)되어 있어 가능하면 원래 척도의 취지를 살리고 또 앞으로 추후의 재검증 연구를 통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항들이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8개 요인 중 관념 정체성 영역의 문항과 대인 정체성 영역의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요인이 단지 3개 밖에 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서는 이 두 영역을 따로 떼어서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EOM-EIS2는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태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질문지법을 사용한 정체성 측정도구들의 단점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태세에 의한 오염이 본 척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그리고 EOM-EIS2 지위 점수들과 서봉연(1975)의 자아정체감 하위척도들 사이에 예상했던 방향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EOM-EIS2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뒷받침해주었다.

그리고 Adams 등(1989)이 제시한 일련의 규칙에 따라 정체성 지위를 분류하고 정체성 지위 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척도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정체성 지위 분류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체 연구 대상자 중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로 분류된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정도(47.1%)로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Marcia(1993)도 EOM-EIS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 지위 분류에 적용된 규칙의 엄격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각 지위점수 평균 + 1SD' 이상의 점수를 절단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각각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다. 따라서 Adams 등(1989)의 규칙을 적용하는 한 다수의 사람들이 미분화유예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다. 정체성 지위분류에서 미분화유예 집단의 크기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분류된 미분화유예 집단만을 대상으로 덜 엄격한 절단점(예: 지위점수 평균 + .67SD)을 사용하여 재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재분류된 사람들은 비록 첫 번째 분류에서 각 지위집단에 할당된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점수 수준은 약간 낮게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각 개인 내에서의 지위점수들의 차이특성은 반영되어 각 지위 집단의 전체적인 특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분류 기준의 엄격성은 미분화유예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 집단들을 보다 엄격하게 분류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상 보다 순수한 정체성 지위 집단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미분화유예 집단이 유예 집단과는 다르며 다소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을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질문지법을 사용한 EOM-EIS2는 면접법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질문지법 측정도구들처럼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예를 들면, 정체성 위기의 심도와 관여의 정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Marcia, 1993). 그리고 앞으로 EOM-EIS2를 통한 정체성 지위분류와 면접법을 통한 정체성 지위분류 사이에 분류의 일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EOM-EIS2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들에서 재검증된다면, EOM-EIS2가 자아정체성 연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이주일(1988). 이분 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 검색 척도와 자기 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Adams, G. R., Shea, J., & Fitch, S. A. (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223-237.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ew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Bourne, E. (1978). The state of research on ego identity: A review and appraisal. Part I.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23-251.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Grotevant, H. D., & Adams, G. R. (198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to assess ego identity in adolescence: Validation and repl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419-438.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551-558.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pp. 159-187). New York: Wiley.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pp. 1-21). New York: Springer-Verlag.

Meeus, W. (1996). Studies of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569-598.

Schwarz, S. J., & Dunham, R. M. (2000). Identity status formulae: Generating continuous measures of the identity statuses from measures of exploration and commitment. *Adolescence*, 35, 147-165.

부록 1-1. EOMEIS-2(개정판)의 문항 내용

※ 다음의 각 문항을 끝까지 자세히 읽고, 각 문항이 귀하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항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항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 쪽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쪽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렇다 쪽이면 얼마나 그러한지, 그렇지 않다 쪽이면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 그 정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 나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직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마음에 드는 일(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그저 손에 닿는 공부를 하고 있다.
2. 종교와 관련해서 나는 아직 마음에 끌리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찾을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3.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내 생각은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같다. 부모님께 영향을 준 생각은 분명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내게는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직 없다.
5.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에게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능성을 아직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6. 나는 가끔 누군가가 청하면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만, 내가 먼저 스스로 참여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7. 나는 데이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8. 정치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고 또 믿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어떤 직업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10. 나는 종교에 대하여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
11. 결혼생활을 할 때 부부가 책임을 분배하는 방법은 아주 많은데, 나는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를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12.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나 자신의 생활방식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찾지는 못했다.
13. 친구를 사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정해둔 특정한 가치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는가에 따라 친한 친구들을 선택한다.
14. 나는 진짜로 전념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아직 찾지 못해서,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경험해보고 있는 중이다.
15. 나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바라는 그런 형태의 이성관계를 선택했다.
16. 정치는 조금치도 흥미가 없어 나는 정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17.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게 말씀하신 이래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본 적이 없다.
18. 나는 신앙에 대해 심사숙고해온 결과 이제는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19. 아직은 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결혼생활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20. 심사숙고한 끝에, 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나 자신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관점을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신다.
22. 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여가 활동을 이미 정했고, 내가 정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3. 나는 이성을 사귀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귀게 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
24. 나는 부모님의 정치적 견해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투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이다.
25. 나는 딱 맞는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직업이라도 상관없다. 단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26. 나는 종교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
27.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모님과 가족에게서 생긴 것인데,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28.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인데, 나는 부모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9. 나는 정말로 절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그런 친구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다.
30. 가끔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할 특별한 활동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아직까지 어떤 이성관계가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형태의 이성관계를 시도해보고 있다.
32.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정당들과 정치적 이상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
33.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34. 지금 나는 종교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럽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다.
35. 결혼생활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얼마 동안 생각해 본 결과, 이제는 어떻게 역할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지를 결정했다.
36. 마음에 드는 인생관을 찾기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벌이고 또 약간의 자기 탐색을 하고 있다.
37. 나는 부모님이 사귀어도 좋다고 허락한 친구들하고만 사귈다.
38. 항상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 왔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39.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데이트한다.
40. 나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본 결과,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장래 직업을 오래 전에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 나는 신앙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품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43. 나는 요즈음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44.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인생관이 흠족하리 만큼 좋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5. 나는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봤다. 그 결과 이제는 내가 친구에게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46. 나는 여러 다양한 여가 활동을 시도해본 결과, 이제는 내 혼자서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활동을 찾아냈다.
47. 내가 어떤 이성상대를 좋아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다.
48. 나는 나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지

- 만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49.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방향의 직업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다.
  50.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항상 다니고 계시는 똑같은 교회(또는 절)에 다니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의문을 제기해본 적은 없다.
  51. 결혼한 부부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52. 나는 대체로 인생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무슨 특별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53. 나는 절친한 친구가 없고 다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정도를 좋아할 뿐이다.
  54. 나는 진정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여가 활동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경험해보고 있다.
  55. 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데이트해봤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트할 때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와 데이트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56. 나는 정치에 대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정치에 대해 그다지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57.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
  58. 나는 정말로 나의 종교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다. 그 종교가 우리 부모님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나에게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59.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아주 다양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60.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결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61. 어떤 친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지 나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정이란 것이 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다.
  62. 내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들은 모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63. 나는 부모님이 허락해주신 사람들하고만 데이트한다.
  64. 나는 항상 부모님의 정치적 견해와 도덕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왔다.

부록 1-2. 정체성 지위별 및 영역별 문항 구성

		관념적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				대인 정체성(Interpersonal Identity)					
지위	영역	직업	정치	종교	생활방식	지위	영역	성 역할	우정	여가활동	이성교제
	영역										
	관념-혼미	1, 25	16, 56	2, 10	4, 52		대인-혼미	19, 59	29, 53	6, 30	7, 23
	관념-폐쇄	17, 41	24, 64	50, 58	28, 44		대인-폐쇄	3, 27	21, 37	38, 62	39, 63
	관념-유예	9, 57	32, 48	26, 34	12, 36		대인-유예	11, 43	5, 61	14, 54	31, 47
	관념-성취	33, 49	8, 40	18, 42	20, 60		대인-성취	35, 51	13, 45	22, 46	15, 55

**부록 2. 정체성 척도 전체 문항(64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영역/지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h^2$
64.	정치/폐쇄	.74								.61
38.	여가/폐쇄	.69								.56
28.	생활방식/폐쇄	.62								.56
63.	이성교제/폐쇄	.62								.64
37.	우정/폐쇄	.62								.57
24.	정치/폐쇄	.60								.44
62.	여가/폐쇄	.60								.46
44.	생활방식/폐쇄	.58								.50
58.	종교/폐쇄	.57			-.40					.66
41.	직업/폐쇄	.52								.35
39.	이성교제/폐쇄	.51								.55
27.	성역할/폐쇄	.48								.52
3.	성역할/폐쇄	.47								.45
17.	직업/폐쇄	.45								.48
21.	우정/폐쇄	.44								.36
33.	직업/성취		-.79							.85
1.	직업/혼미		.79							.63
49.	직업/성취		-.78							.79
57.	직업/유예		.74							.61
12.	생활방식/유예		.40			-.35				.69
52.	생활방식/혼미		.35							.39
25.	직업/혼미		.31					.30		.47
51.	성역할/성취			.67						.74
43.	성역할/유예			.66						.61
19.	성역할/혼미			-.66						.58
35.	성역할/성취			.61						.52
11.	성역할/유예			.54						.43
59.	성역할/혼미			-.49			-.32			.60
55.	이성교제/성취			.45						.50
15.	이성교제/성취			.36						.36
47.	이성교제/유예			-.29				.27		.47

문항	영역/지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h^2$
10.	종교/혼미				.83					.79
2.	종교/혼미				.82					.81
18.	종교/성취				-.76					.73
42.	종교/성취				-.67					.60
26.	종교/유예				.52					.54
50.	종교/폐쇄	.34			-.38					.45
34.	종교/유예				.28			.24		.42
60.	생활방식/성취		-.47			.57				.66
20.	생활방식/성취					.57				.50
46.	여가/성취					.55				.56
22.	여가/성취					.49				.61
45.	우정/성취					.47				.50
4.	생활방식/혼미		.35			-.36				.50
13.	우정/성취					.27				.29
40.	정치/성취					.24	.24			.22
16.	정치/혼미						-.68			.76
56.	정치/혼미						-.56			.62
8.	정치/성취						.55			.33
48.	정치/유예						.52	.34		.44
54.	여가/유예							.67		.69
31.	이성교제/유예							.48		.61
14.	여가/유예							.45		.53
30.	여가/혼미							-.40		.36
6.	여가/혼미							-.38		.40
36.	생활방식/유예						.34	.35		.34
9.	직업/유예							.28		.55
5.	우정/유예			.23				.26		.31
32.	정치/유예							.23		.31
29.	우정/혼미								.61	.61
7.	이성교제/혼미			-.38					.49	.52
23.	이성교제/혼미			-.45					.49	.64
53.	우정/혼미								.45	.58
61.	우정/유예							.31	.42	.40
고 유 치		5.48	3.77	3.58	3.37	2.88	2.45	2.34	2.20	
총 변산 비율(%)		8.56	5.89	5.60	5.27	4.50	3.83	3.66	3.43	40.73

## A Validation Study of the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EOM-EIS2) in College Students

Haeng-Woo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EOM-EIS2)(Bennion & Adams, 1986) in college students. The EOM-EIS2 is an continuous scaling instrument designed to measure identity status directly. Ease of group administration is it's distinct advantage compared to interview method. The EOM-EIS2 was found to have acceptable reliability(bot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and validity(factorial, discriminant, and concurrent). It was established that responses to the EOM-EIS2 were not seriously contaminated by social desirability. Status scores from the EOM-EIS2 were correlated with subscale scores of the Ego Identity Scale as was expected. After identity status classification, status group means of the Ego Identity Scale's subscale scores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identity status groups were classified adequately, which suggested that the EOM-EIS2 was valid and useful measure in identity study. Finally, the problem of identity status classification rules and the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EOM-EIS2 were discussed.